

잃어버린 역사의 비밀 밝힌 기념비

崔仁浩의 「잃어버린 王國」을 읽고

金洪信

소설가



탁월한 감성으로 이른바 70년대를 풍미한 최인호를 가리켜 '언어의 마술사'라는 별호를 붙여준 것은 지당한 일이었음에도 그는 줄곧 그런 접두사를 거부해왔다.

아마 최인호형이 기념비 하나를 세우기 위한 거부의 몸짓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은 근자에 완간된 「잃어버린 王國」 탓이다. 장장 삼년 반이란 시간을 오직 한개의 주제로만 연명하듯 질기게도 역사의 비밀을 밝히려 든 그의 대책 없는 작가정신을 함부로 옮긴다는 건 분명 내 영역이 아니라.

그렇거니 최인호형의 지난 몇해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뭉쳐 다니며 그의 産物을 지켜본 탓에 「잃어버린 王國」이 단순히 그의 역량과 몸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라 최인호문학의 중반기 한 도막을 마무리하는 새로운 변모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피를 뽑아 쓴 작품

「잃어버린 王國」은 최인호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피를 뽑아 쓴 한 흔적이다.

어쩌면 뽑아 쓴 피뎀이 고일 때까지 그는 소설을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내게 주곤 한다. 그에게 소설이란 사람 얼크러져 사는 세상 이야기라고, 휴머니즘의 승화라고, 인간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공감대의 형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탁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뽑아 쓴 피보다 훨씬 해맑아진 피뎀이 그의 심장에 조금씩 피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식민지사람으로 이땅의 역사를 더럽힌 학자와 지식인들이 민족의 자존심마저 상체를 냈고 지나쳐도 좋을 자긍심을 분말화하였다는 것은 소장학자와 일부 지식인들이 이미 명징하게 지적한 바 있고, 역사기술이 부단히 새롭게 정리되고 수정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소장학자와 일부 지식인들이 조작된 역사를 규명하는 일은 엄청난 극기였다. 식민지사관에 물든 자들의 횡포에 학위는 물론이고 그런 바른 시각 자체를 절단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만큼이라도 우리 역사를 제 자리에 앉힌 것은 분명 대단한 용기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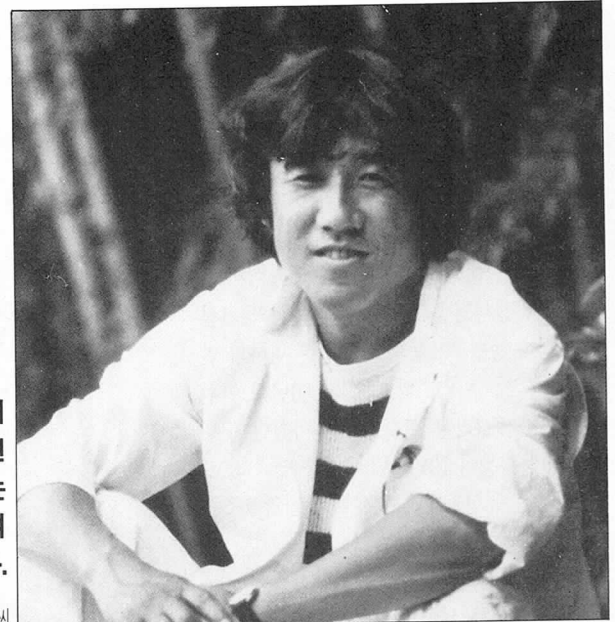
역사기술의 오점이나 조작, 또는 시각이 바르지 못한 편차는 결국 민족사를 오욕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지난 한국적 제반 상황에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났다.

자칫 최인호형을 가리켜 국수주의적 발상으로 「잃어버린 王國」을 집필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사실을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원료로 씌어졌다"고 밝히고 있으며, 학자들의 검증으로도 '추리

식민사관이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조작된 역사를 작가 최인호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새롭게 복원시켰다.

「잃어버린 王國」의 작가 崔仁浩씨



가 아니라 사실을 소설화 했음을 인정하고 있기에 국수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역사의 비밀을 조명한 秀作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거대한 조작이 식민지사관을 만들었고, 식민지사관에 젖어버린 이땅의 학자들이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그 조작된 역사를 작가 최인호는 수차례의 현장답사와 확인과정은 물론이요 학자들의 새로운 규명자료를 찾아내어 대조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 앞에 실체를, 잃어버린 왕국과 분실된 역사와 조작된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역사는 민족의 거울이며 미래의 디딤돌이기에 가장 엄중하게 씌어져야 한다.

최인호형은 역사학자가 아니다. 그는 이땅에 살고 이땅의 언어로 소설도 쓰고 동시대의 암흑을 지켜보며 기도하는 작은 사내일 뿐이다.

그는 그저 행운이었다고,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작가의 작은 몫 하나를 놓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일 하나를 해냈는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삼국 뿐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아침마다 우리의 잃어버린 왕국을 제대로 알려준 것도 그는 그저 탐험이었다고 말한다.

최인호 '제3기 문학사'의 진통기

일본 취재를 몇달씩 다녀오면, 그는 파김치처럼 늘어지고 거렁뱅이마냥 말라빠진 채 다시는 그 것을 앓을 것마냥 비척거리곤 했다. 저러다가 생사람 잡지 싶어 몸 아끼라고 거들면 그래야겠다는 걸로 그만이었다. 신 지피지 않고는 피뎀이 상점하듯 그 작업을 해낼 수

없었으리라.

「잃어버린 王國」이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엮여지던 지난 40여일 동안, 우리는 그의 몰골을 볼 수가 없었다. 매일 밤을 지새우며 작업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작업과 묵상과 고해로 염친을 넘겼다. 가까운 이들과조차 만나지 않은 채 그는 일에 파묻혔었다.

오래 전에 나는 인호형에게 미워한다고 고백했었다. 그런 내게 인호형은 빙긋 웃으며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인호형은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엔가는 자동차보험이나 교육보험 따위는 가입하면서 정신의 보험이나 영혼의 보험에는 왜 가입하지 않느냐고 잘난 체를 하였다. 인호형은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마스한 우정과 그 자신의 깨달음으로 성당에 나가 영세를 받았다.

그는 매일매일 내게 부끄러움을 가르친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혼묵욕을 한다. 그래서 언제나 금방 목욕하고 나온 사람마냥 신선한 눈매와 밝은 웃음으로 내 때묻은 영혼을 부끄럽게 한다.

항용 그런 인호형을 가리켜 놀라운 변모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그의 심성을 들여다 본다면 애시당초 그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한마리의 양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인호형의 제3기 문학사가 시작되는 진통기라고 믿는다. 설사 내 이런 믿음이 「잃어버린 최인호」가 되더라도 나는 인호형의 제3기를 기다릴 것이고 그의 넉넉한 가슴을 시리도록 맛보고 싶다. 인호형의 작업이 작은 불씨하기를 기대하며.